



## 박 종 선 의원

무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체적인 관리·운영 부실을  
쇄신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뤄내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산하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그에 따른 부실경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

150만 대전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본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경영은 운영주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시설개선 노력,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들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의 경영부실화 구조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연 평균 110억 원이라는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청산 명령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허술한 관리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부실경영 문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 사업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부실경영 사례인 엑스포과학공원 임대업체들의 체납액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임대계약업체들의 체납 현황 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 **염홍철 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자, 이렇습니다.

현재 채권 확보된 건이 11건입니다만 미수금액이 4,380만 원, 대부분이 관리비, 지료, 임대료, 전기료 등등 이렇게 미납되어 있고요. 징수대책은 독촉공문 정도 발송하는 정도입니다.

# 허술한 관리운영에 따른 임대업체 체납 실태

## ● 채권 확보 : 11건

(단위 : 원)

업 체 명	미수금액	세부내역	징수대책	채권
합 계	43,881			
위 버	2,949	임대료 외	독촉공문 발송	보증금(현금)
케 이 쓰 리 아 이	2,420	임대료 외	독촉공문 발송	보증금(현금)
블 루 와 이 즈	4,279	관리비 외	내용증명 독촉공문 발송	보증금(현금)
문앤문커뮤니케이션	498	관리비 외	독촉공문 발송	보증금(현금)
대 덕 위 즈	4,900	관리비 외	계약해지 퇴거	보증금 공제
한 우 정 담	5,666	지료 외	독촉공문 발송	보험증권
한 스 략 스 터	6,456	지료 외	독촉공문 발송	보험증권
소 르 켄 패	2,350	지료	독촉공문 발송	보험증권
소 르 켄 패 2	4,847	지료	독촉공문 발송	보험증권
다 물 에 듀 비	7,803	임대료 외	계약기간내 미납시 보증보험금 청구권 행사	보험증권
사 이 언 스 컴	1,713	전기료 외	계약기간내 미납시 보증보험금 청구권 행사	보험증권

채권이 미확보된 것이 문제인데 14억 원 정도가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허술한 관리운영에 따른 임대업체 체납 실태**

● 채권 미확보 : 4건

업 체 명	미수금액	세부내역	징수대책
합 계	1,407,929		
글 로 먼 트	7,619	관리비 외	채권추심 진행중
카 드 사	10,100	티켓대금	완납(카드사별 익월 정산)
루드림엔터테인먼트	140,434	관리비 외	독촉공문 발송
문 화 산 업 진 흥 원	1,249,776	관리비 외	독촉공문 발송, 대전시 추경 후 납부 예정

※ '11.9월말 현재 채권 미확보 미수금 : 4건(1건은 10월 완납)

꿈돌이랜드 지료 미납된 현황입니다.

향후 징수할 금액이 41억 5,400만 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배짱 영업하는 꿈돌이 랜드 미납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징수대책
총 미납금액	9,034백만원	
부지사용료(면제)	3,500백만원	'07.4월 ~ '10. 3월(3년간)
미납금액	5,534백만원	'07년 ~ '26년(20년 분할납부)
2011년 현 재	기 납부금액	'07년 ~ '10년
	미납금액	11년
	향후 징수할 금액	'12년 ~ '26년(15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체납된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수된 실적이 저조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염홍철** 시장

체납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돌이랜드는 44억 원을 20년간 분할상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4억 원은 앞으로 낼 돈이지 체납액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문제는 21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20억 9,200만 원인데 그것은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꿈돌이랜드 측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입장료 무료를 제안했습니다.

무료입장료 제안과 동시에 3년 동안 지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한 푼도 안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 3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는 지료를 내라” 이런 것이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무료입장 때문에 지료를 면제해줬는데 그러면 다시 입장료를 받으란 말이나, 시에서 또는 엑스포과학 공원에서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 받았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받아라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료를 계속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3년간 지료 면제해 준다고 그랬지 언제 계속 면제해 준다고 했느냐, 내라” 이게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체납된 금액이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임대업체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의원이 인지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꿈돌이랜드에서 향후 내기로 했던 것도 연체됐다  
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HD드라마타운 등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실시될 경우에 말이지요, 시장님.

사업의 중지, 예를 들어서 임대업체들이 더 이상 밀린  
임대료, 지료 등을 내지 않겠다 할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 **염홍철** 시장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꿈돌이랜드를 비롯해서 모든 입주업체에게  
시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중지하도록 계약도 되어 있고

법원의 화해조정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명령을 낼 때 그 사람들이 잔여 그런 어떤 이익을  
주장하든지, 배상을 얘기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종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단기 순손실 엑스포과학공원 60억 원, 작년도에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 염홍철 시장

그것은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60억 원이고 실제 적자는 28억 원입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이렇게 체납된 금액 등등 여러 가지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지적인 측면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 본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 **염홍철 시장**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체납이 있고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종선 의원**

그리고 시에서 출자출연한 문화산업진흥원도 연체가 됐었지요?  
12억 4,900만 원, 시에서 납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염홍철 시장**

연체가 됐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전액 납부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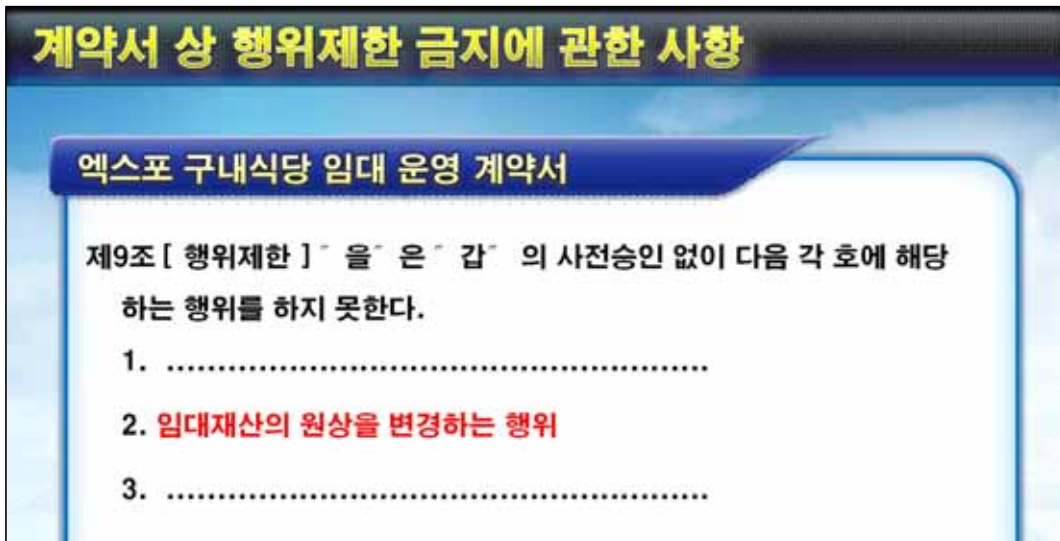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 스스로 그동안 부실경영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혹시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장, 현재 지금은 엑스포컨벤션웨딩홀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터무니없는 임대료로 사업자는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불가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에 계약기간 연장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

그런데 6월에 계약연장이행의 소를 이 사업자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소송 중에 여러 가지 패소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화해권고 의견이 양측에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시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4년간 또 다시 계약이 연장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연장에 따라서 앞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 분들 세 분, 본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현실화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11시에 헤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 본 의원이 모 측 인사로부터 “그것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그분들 준공무원인데 정신 상태를 본 의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가 있는 듯 하니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느냐” 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그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본 의원이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본 의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자에게 본 의원도 패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해준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 ● 염홍철 시장

사실은 이것은 민선4기에서 계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행위주체는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또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큰 명분 아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장 임대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민선4기 때 했지만 제가 그 뒤에 파악을 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지난 5월에 재계약불가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시장님.  
그 통보한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 염홍철 시장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통보하는 것입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지 않고요, 그 배경에는 현재 법인청산 명령이행 절차에 있고, 향후에 엑스포재창조사업 또한 그 자리에 입지가 선정이 된 HD드라마타운사업 이것이 당장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시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엑스포과학공원의 임원들의 판단 하에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염홍철 시장**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컨벤션센터가 금년 8월 17일이 만기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당연히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지요.

● **박종선 의원**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배경 그것을 본 의원이 여쭙었던 것이거든요.

● **염홍철 시장**

배경은 8월 17일에 만료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 **박종선 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에서 전격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이지요?



## ◎ 염홍철 시장

재판이 오래가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실리가 없습니다.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화해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나 하면 공공사업추진 시 계약 중도해지  
명시했습니다.

유익비 등 일체 손해배상청구 포기, 그 다음에 계약연장에  
따른 지료를 현실화시키자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반영 조건으로 화해를 받아들였는데 이 화해권고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박종선 의원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개 사업자하고 다툼을 하면서 원칙 없이 명분 없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2심에 항소를 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해권고결정문인데 이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니까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이유입니다.

“투입된 비용과 연간수입 규모 등으로 보아 원·피고는 묵시적으로 서면화하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임차기간의 연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그리고 “제시설 중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설이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인 국제회의장과 그 부속시설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이 나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성실하게 예식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예식장은 계약서상 못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경영을 하였다.” 전혀 피고에게, 우리 대전시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건물을 회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급진척되게 될 시책이 반영되면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6. 다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식장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재판부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항소를 했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 ● 염홍철 시장

법원의 결정을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을 다 관철시키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판단을 했고,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 가지가 다 관철됐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판결문을 썼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법원의 책임이고 법원의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시장님, 본 사업자에게 동년도입니다.

똑같은 동일연도에 하나는 국제회의장을 계약을 해주고 하나는 구내식당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기간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아야 맞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 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기간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7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는 5년, 7년, 2년이 남았던 말이지요.

2년간 식당을 임대료는 이미 다 제공했는데 그냥 놀려야 될 형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장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염홍철** 시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민선4기, 제가 재임 중이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컨벤션센터는 5년, 연회장은 7년 계약한 것은 저는 시기를 일치했어야 됐다, 만일 제 책임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시기를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가 5년, 7년으로 계약이 됐고 그 계약기간 동안은 그 계약에 충실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 **박종선** 의원

두 시설이 계약대표자 이름은 같습니다, 권 모.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CH기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동년 2개월 후에 식당은 주식회사메트로웨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설을 계약할 당시에는 컨벤션시설 국제회의장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본 의도는,

본심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계약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화해권고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식당 등의 시설물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고의 항변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물은 임의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 계약서상에 시장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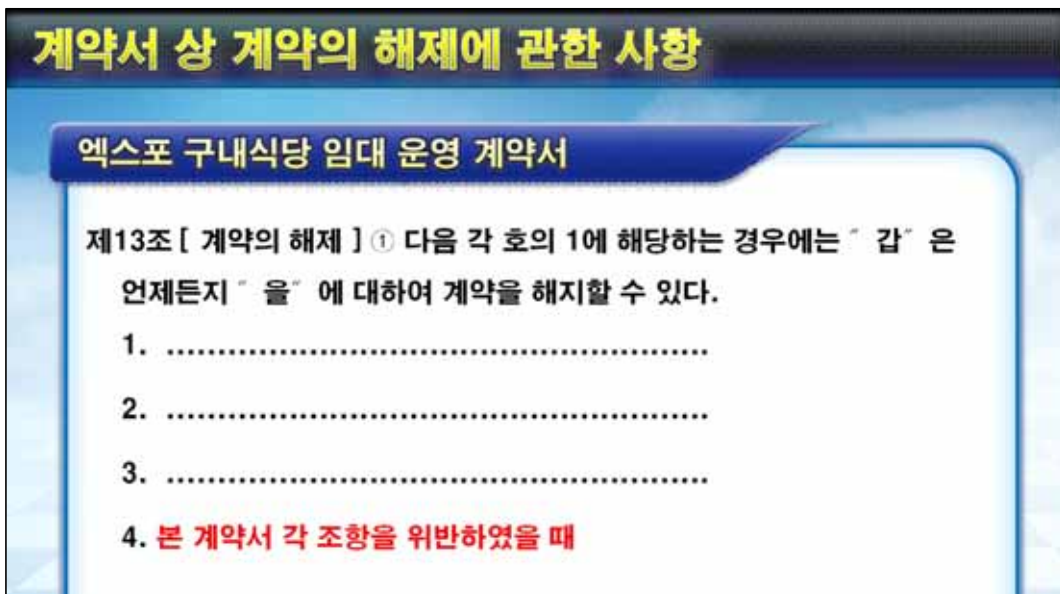
### ● 염홍철 시장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진 모든 서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운영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본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변경을 허락해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장님, 계약서상에 국제회의장은 “상기 임대시설물은 세미나, 회의, 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시설로서 사용한다.” 이 사용목적은 임대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컨벤션시설로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를 했던 어쨌든 예식장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식장 위주의 사용 실적**

● 국제회의장 사용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합 계
국내회의	12	11	13	18	3	57
예 식	135	158	170	187	143	793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회의 57건밖에 유치 못했습니다. 예식장 793건, 800여 건 이렇게 했거든요.

93%가 예식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상하지요?

◎ **염홍철 시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목적이고 있고 부목적이 있는데 주목적보다 부목적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예식업 허가를 1999년에  
받았습니다, 그 건물이. 그리고 이미 과거부터 즉, 엑스포기념재단  
시절부터 예식을 죽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식과 국제회의의 균형이 안 맞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습니까?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예식장사업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성공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본 의원이 사업자하고, 특히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공시설을 국제 회의장으로 임대를 해서

그것을 경영을 잘해서 수완을 잘 발휘했던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을 주차장, 식당, 예식장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남겼단 말이지요. 수익이 창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분이 대전시에 발전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기금이라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다 본 의원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 ◎ 염홍철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 산하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발전기금을 낸다고 하면 저는 안 받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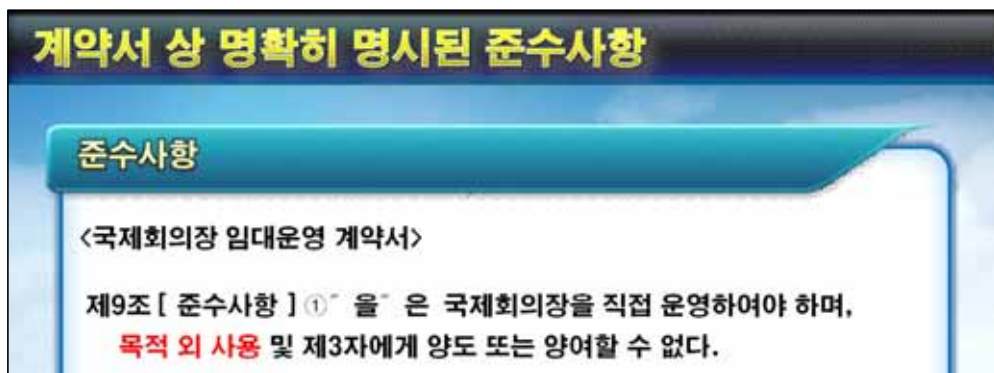
그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본 바도 없지만 만일 제안을 했다고 해도 저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 ◎ 박종선 의원

전에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서 제9조 넘겨보세요.

임대운영계약서에 “제9조 을은 국제회의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다.” 국제회의장은 컨벤션시설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국제회의장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연간 5,12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염홍철 시장**

주차까지 해서 한 1억 원쯤 됩니다. 무료주차에 대한.

● **박종선 의원** 2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염홍철 시장** 월 440만 원인데.

● **박종선 의원** 월 44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 **염홍철 시장** 예, 그래서 합치면 한 1억 원쯤 됩니다.

◎ 박종선 의원      주차료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주차료도 22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 1주당 5,000대 계산해서 2만 대, 거기 주차료가 1,500원씩 받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님들 손잡고 가는 어린이들한테는 주차료 전부 징수하거든요. 그런데 당일예예 손님들한테 주차료 받지 않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본 의원도 이 문제를 알기 전에는 ‘그 시설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처음 이 사실을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5,120만 원인데 월 426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시장님께 드릴게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이것은 이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주차대수가 1,800대 이거 가능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요, 시장님. 월 임대료가 426만 원, 연간 임대료가 5,120만 원입니다.

캐피탈타워웨딩홀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한 예식홀인데 주차대수 300대, 월 임대료가 7,0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8,400만 원.

둔산사학연금웨딩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주차대수 500대, 연간 임대료가 3억 9,272만 원.

에이스웨딩홀 신탄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주차대수 350대, 월 임대료가 1억 6,291만 원, 연간 임대료가 19억 5,580만 원, 홀 한 개수 같습니다.

**인근 웨딩업체보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

● 웨딩시설 및 임대료 비교현황

구 분	임 대 현 황	주차대수	월 임대료	연간 임대료
엑스포 국제회의장 (엑스포컨벤션 웨딩홀)	◆ 홀 : 1개소(379평) ◆ 연회장 : 1개소(512평)	1,800대	426만원	5,120만원
캐피탈타워 웨딩홀 (둔산동)	◆ 홀 : 1개소 ◆ 연회장 : 2개소	300대	7,000만원	84,000만원
둔산사학연금 웨딩홀 (둔산동)	◆ 홀 : 1개소 ◆ 연회장 : 2개소(1,230평) ◆ 예약실 : 1개소	500대	3,273만원 보증금 45,520만원	39,272만원
에이스 웨딩홀 (둔산동)	◆ 홀 : 1개소(277평) ◆ 연회장 : 2개소(856평)	350대	16,291만원	195,580만원
웨딩캐슬 (괴정동)	◆ 홀 : 2개소 ◆ 연회장 : 2개소(2,000평) ◆ 부대시설 : 2개소	300대	4,200만원 보증금 120,000만원	50,400만원
상젤리제 웨딩홀 (둔산동)	◆ 홀 : 1개소 ◆ 연회장 : 2개소 ◆ 부대시설 : 1개소	700대	4,000만원	48,000만원

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 시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민선4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업자예요, 이분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헐 값에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시장님,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특혜라고 오해를 살만하지요?

### ◎ 염홍철 시장

지금 박종선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 예식장과 일종의 멀리 떨어진 공원지역의 예식장과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그 정신 이랄까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계약을 4년간 연장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단서를 붙이기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지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할 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것은,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료를 현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화는

누가 지료 액수를 결정하느냐, 객관적인 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그쪽과 엑스포과학공원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현실화 시킬 것입니다.

◎ 박종선 의원      예,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타 어느 예식장보다 영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내년 9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객이 많은 혼주일 경우 반드시 이 엑스포과학공원 예식홀을 찾습니다. 주차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0명을 수용할 만한 식당이 엑스포과학공원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300명~400명 들어갈 만한 예식홀이 엑스포과학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 정도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9개월간 앞으로 예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의원이 이것도 건의를 시장님께 한번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갑자기 시책사업이 추진이 된다든지 그리고 국비가 갑자기, 뭐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면 예식을 받아 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요, 한국 전통사상에 혼사는 택일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날짜에 그곳에 예식을 예약을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 날짜에 그 시에 다른 데에는 예약이 다 차있어요.

그러면 그 예식을 시민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 그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에 그 사람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을 해줄 것이라면 최장 5개월 이상은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 염홍철 시장

그래서 지금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미리 간파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계약 잔존기간에 대한 영업기대수익 등 각종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체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약 해제사유가 발생해도 그 귀책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이지 저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종선 의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덕적인 관습, 풍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식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은 예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걱정을 하거든요.

● 염홍철 시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그것까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6개월 간은 받지 마시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만일 그래서 예약이 해제되면 그 책임을 거기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종선 의원

어쨌든 시장님 그런 부분도 다시 계약할 때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엄홍철 시장       예, 알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HD드라마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국책사업 유치할 때 언론에 난 기사인데요.

대전시 HD드라마타운 민선5기 “첫 국책사업 유치확정”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 엄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리고 경제성을 인정받은 HD드라마타운, 이런 기사도 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건대 “중앙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도 내려보내 주고 용역도 완료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염홍철 시장

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것을 완공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임장관, 현재의 장관에게 의지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올린 것 같아서 이번에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부분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예결위가 통과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는데 다만, 기획재정부는 1년 정도,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한 1년 정도 더 늦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예산을 한 1년간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러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요, 한 2~3년 기다려야 되지요?

● **염홍철 시장**

아니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까지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었을 때 이제 착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 **박종선 의원**

설계가 끝나면 착공시점은 향후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 **염홍철 시장**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구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1년이면 되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예, 1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 **박종선 의원**

1년이면 그러면 그 사업자, 시작되면 그만 뒤야지요,  
국제회의장 사업가요?

● **염홍철 시장**            당연히지요.

● **박종선 의원**            예, 그렇습니까?

● **염홍철 시장**            그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자, HD드라마타운은 그렇고요.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지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고 해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러면 이것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엑스포 재창조사업이요.

● **염홍철 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을 잠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10월 18일에 중지를 시켰는데 그것은 무슨 난관에 봉착해서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유리한 대안선택을 위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가시화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시화된 사업을 12월 중에 결론을 내고

만일 그대로 가면 좋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대안사업을 바로 며칠 이내에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조금 미뤄놓고 있는 것이지, 난관이 있어서 미뤄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종선 의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 **염홍철 시장**

그 기간이라는 것이 이번 달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 **박종선 의원**

이달 안에 끝나면 마케팅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 업무에 전환이 되어서 일을 하나요?

● **염홍철 시장**

아니 지금 마케팅공사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왜 마케팅공사를 신설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신설할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내려서 금년 12월 31일이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공사를 만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 해체된 것을 대체하고 또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DCC까지 합쳐서 DCC와 엑스포과학공원 두 법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마케팅공사로 우산을 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근무자들은 마케팅공사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 박종선 의원      그대로 흡수되지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그런데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 염홍철 시장      아니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법인은...

● 박종선 의원

아니, 엑스포과학공원 내부시설들의 운영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염홍철 시장

법인은 금년 말이면 없어지고 마케팅공사로 대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은 다 똑같은데 이름은 바뀌는 거지요.

● 박종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을 했고요. 사장도 새로 왔습니다. 사장 대단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엑스포과학공원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이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마케팅공사 사장이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것을 변모·개선시켜서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면 잘 될 것이라는 보고 같은 것을 받은 바 있습니까?

◎ 염홍철 시장

지금 그것은 저희 과학특화본부와 마케팅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무자 간에 또 양 책임자 간에 공동으로 재창조사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깐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최근에 오픈한 것입니다.

교통문화체험센터 그 다음에 첨단과학관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하던 것 중에서 영상시설이 한두 개쯤 괜찮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개 시설은 잘 운영이 됩니다.

거기예다가 이제 HD드라마타운과 시티센터와 거기 특수효과타운과 이래서 하나의 영상산업단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딱 잡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것이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심의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행상황에 전혀 장애는 없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세요?

● 염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시장님,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 오늘 시정질문이니까 앞으로 드릴 기회가 직접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에 남은 천혜의 땅이다 그리고 이 천혜의 땅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콘셉트가 난개발 무슨 형태가 아니고 단일화된 콘셉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염홍철 시장

과학기술에 대한 또 청소년들의 전시·체험공간으로 그런 어떤 단일한 콘셉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흐름은 기존에 있는 관들, 그 다음에 몇 개 새롭게 유치하는 것 중에서는 엑스포기념품전시관, 그 다음에 기흥성 모형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유치되고

그리고는 영상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단일 콘셉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두세 개의 복합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엄홍철 시장           예.

◎ 박종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도시마케팅공사는 지금까지의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 상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적자경영의 폭을 줄이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공원으로 다시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엄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부재에서 오는 방만한 경영관리를 쇄신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인 HD드라마타운 유치사업 그리고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민선5기 염홍철 시장님 임기 내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